

500 cc 정도 마시게 한 후 검사를 한 결과, gastric wall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환자를 prone position에서 검사한 결과 supine position에서처럼 gas로부터 나오는 artifact가 생기지 않았고, 전체적인 gastric wall을 잘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stomach 각 부위의 anterior wall이 잘 보였다. 이러한 method에 의해 검사를 한 결과 gastric wall이 abnormal하게 enhance가 되고 두꺼워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tumor의 case와 어느 정도로 invasion되었는지 도움이 된다. 이것은 spiral CT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다. Prescan한 것과 postscan, post delay scan한 것을 비교하여 tumor의 invasion을 알 수 있고, pancreatic invasion, other organ, lymph node metastasis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esophagogastric junction에서부터 tumor의 위치까지 distance를 알 수 있어 수술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다.

<8> 간·담도계 투시조영술의 변화추세에 관한 조사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진단방사선과
손순룡·홍종부·김건중

1. 서론

의료 수준 및 의료 장비의 발달이 미약하고 낙후되었던 종전의 간·담도계에 있어서 방사선학적 검사는 주로 투시 조영을 이용한 검사법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현대 의학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학문과 검사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 결과로 US, CT 등이 급속도로 발달하였으며, 검사 건수 또한 비교되지 않을 만큼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점차 자취를 감춰버린 검사법이 있는가 하면, 계속 유지되고 또한 성장하고 있는 검사법도 있다.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검사법이 경구담낭조영술이며 US, CT 등에 못지않게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검사법이 투시를 이용한 ERCP와 내시경을 이용한 중재적 시술법이다. 1989년도 3/4분기부터 1993년도 4/4분기까지 본원에서 실시한 경구담낭조영검사 현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ERCP와 이를 이용한 중재적 시술법을 토대로 투시조영술의 변천 과정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방법

본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은 신생병원으로서 그 역사가 5년(1989년-현재)으로 타 병원에 비해 비교적 짧아 간·담도계 투시 조영술의 변천 통계를 연도별 보다는 분기별로 세분하였다. 우선 간·담도계 투시 조영 검사인 경구 담낭조영술과 ERCP의 검사 건수를 매 분기별로

합산하여 비교하므로써 검사의 중요성과 향후 변화 추세를 검토해 보았다. 또한, ERCP는 진단을 위한 단순한 검사와 치료까지 겸하는 중재적 시술법인 EST(유두 괄약근 절개술), ENBD(내시경적 경비 담도 배액술), Stent Insertion(=ERBD), Stone Removal(결석 제거술), Mechanical Lithotripsy(기계적 쇄석술), Mother & Baby Scopic Examination(친자 방식 이용 검사), Manometry of Sphincter of Oddi(오디 괄약근 운동의 측정) 등으로 더욱 세분하여 각각의 검사 건수를 매 분기별로 합산하고 비교 검토하여 나타난 변화율(증가율)을 토대로 향후 간·담도계에 있어서 투시 조영술의 전환 및 증가 추세를 분석하였다.

3. 결 과

간·담도계에 투시 조영술의 증가율은 91년 4/4분기까지는 20 % 이상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분기별로 소폭의 증가와 하락을 보이며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였다. 연간 총 검사중 경구 담낭조영술과 ERCP 및 담도경 조영술의 분포율(점유율)은 경구 담낭조영술 55 %, ERCP 42.7 %, 담도경조영술 2.3 % 등으로 나타났으며, 담도경 조영술은 92년 3/4분기 이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ERCP 중 EST의 점유율은 개원초 6 %에서 93년도에는 49 %로 8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ENBD 삽입술은 90년에 9 %에서 22 %로 두배 이상 증가되었다. 그밖에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법은 1991년도 3/4분기를 전후로 시작되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4. 결 과

간·담도계 투시조영술의 변화 추세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경구 담낭조영술은 1991년도 2/4분기까지 25 %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안정세를 나타냈으며, 이는 담낭의 기능을 보기에 가장 적합한 검사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2) 담도경 검사의 추세는 투시를 이용하여 생검 및 결석 제거가 활발히 시행되리라고 판단된다.
- 3) ERCP는 1991년도 4/4분기까지 20 %정도 증가하다가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종래의 진단적 검사에서 점점 치료를 겸하는 중재적 시술을 병행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4) 중재적 시술법 중 점유율이 높은 것은 EST와 ENBD로 매년 현격한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외의 시술법들 역시 근래에 도입된 시술이지만 앞으로는 간·담도계 투시 조영 검사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구 담낭 조영검사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리라 보여지며 ERCP는 진단용 사진 촬영술에서 치료를 겸하는 중재적 시술로 변천되리라 예측되며 아울러 환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양질의 진료서비스가 이루어지리라 본다.